완도해양치유센터 누적 치유객 10만 명 달성!

8월 31일 기준 100,007명 찾아… 16개 해양치유 효과 입소문 타며 치유객 늘어

완도해양치유센터 누적 치유객 수가 지난 주말 기준 10만 명을 달성했다. 10만 번째 치유객은 광주광역시에서 친구와 함께 센터를 찾은 김아로 님으로 전복 세트와 센터 초대권이 경품으로 전달됐다.

김아로 님은 "SNS에서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 후기 영상을 보고 방문하게 됐는데, 10만 번째 치유객이 돼서 영광스럽다", "해양치유를 직접 해보니 스트레스가 풀리고 피부 보습에 너무 좋아서 꼭 재방문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시설로 해양기후와 해수,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웰니스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해조류 거품, 머드, 해수, 저주파, 스톤 등 치유 테라피의 효과가 입소문을 타며 전국에서 찾는 발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방문율도 높다.

지역민은 물론 가족 단위 여행객,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 치유객 10만 명 달성 기념 환영 이벤트를 시작으로 10만 보 맨발 걷기 챌린지, 해양치유 건강 릴레이, 10만 축하 포토존 SNS 인증 이벤트 등을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치유객 10만 명 달성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면서 "국내 최초라는 명성에 걸맞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해양치유를 통해 심신을 치유할 수 있도록 양질의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곡성군, '매일 만나는 소아과' 만족도 100%

고향사랑기부제로 탄생한 소아과, 군민 삶에 안착

전남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소아과 상시진료 개시 100일을 맞아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매일 만나는 소아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폼을 통해 444명에게 안내하였으며, 175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40%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군 내 소아과 부재로 인해 과거에는 광주광역시(59%)나 전북 남원시(20%)까지 원정 진료를 다녀야 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신설된 「매일 만나는 소아과」는 군민들의 높은 의료 수요를 반영하듯, 응답자 전원(100%)이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라고 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만족 이유로는 '친절한 진료'(52%)와 '가까운 거리'(28%)가 가장 많았으며, 이용객 4명 중 3명은 재방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방문 목적은 일반진료가 가장 많았고(58%), 예방접종(25%)과 영유아 검진(17%)이 뒤를 이었다. 인지 경로는 군 홈페이지 및 SNS(32%)와 어린이집·학교 안내장(23%), 포스터·현수막(22%) 등이 주를 이뤘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응답자의 73%는 소아과 상시진료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개설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98%가 주변 지인에게 기부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응답자들은 의료기기 확충 등 서비스 다양화와 품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다수 제시했으며, 예약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곡성군은 이러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곡성군민의 소아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앞으로도 예약 시스템 구축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군민들께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곡성/이정수 기자

광양시, '대한민국 SNS 대상' 투표 참여 독려 이벤트 추진

현장 이벤트도 병행… 투표 참여 시민에 매돌이 파우치 증정

광양시는 '제15회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대국민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고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SNS 분야 시상이다. 주최 측은 2011년부터 매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투표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 '광양시 응원(Cheer)하고치. 올. 스!(Cheers!)'로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온라인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http://snsawards.com/vote2025_2/1476789)에 접속해 네이버 간편 로그인 후, 공공부문 '광양시청' 페이지에 들어가 추천 버튼을 눌러 투표하고 응원 댓글을 남긴 뒤, 해당 화면을 캡처(스크린샷)해 네이버폼(https://naver.me/IM4yCZRR)에 제출하면 된다.

응모를 완료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50명에게 경품이 제공된다. 경품은 ▲뿌링클 치킨+콜라 1.25L 세트(50명) ▲올리브영 3만 원 쿠폰(50명) ▲스타벅스 3만 원 쿠폰(50명) 등이다.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된다. 시는 오는 9월 3일 용강도서관, 8일 중마도서관, 10일 금호청소년문화의 집 등 주요 권역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매돌이 파우치 등 굿즈를 증정하는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번 홍보를 통해 광양시 공식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이 널리 알려지고, 많은 시민들이 소통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벤트 참여 시 광양시 SNS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란다. 이를 통해 시의 정책,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소식을 가까이 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양시가 SNS 분야에서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와 응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행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NS 선도 도시로 더욱 발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진도군, 우제류 4만 6천 마리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소, 염소, 돼지 약 4만 6천 마리 일제 접종

진도군은 구제역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은 소, 염소, 돼지 약 45,968마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를 통한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진행한다.

수의사 동원 접종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자가 접종은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임신말기의 가축, 일제 접종 유예를 신청한 농가는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다.

군은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방접종 후 항체가 검사를 시행하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항체 형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추가접종과 재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접종 기간에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하여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진행하고,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관찰(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접종을 통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항체 양성률을 철저히 관리해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겠다"라며, "농가에서도 반드시 기간 내에 접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장흥군, '취약계층 생활지원' 통해 복지 사각 해소 앞장

사회보장급여 중지·감소 가구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장흥군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취약계층 생활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가 중지되거나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에 대해 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 상실감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생필품 등 긴급지원 물품을 제공하고, 각 가정의 복지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공적 서비스와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것이다. 특히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한 가구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을 통해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누락 없이 복지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생필품의 단순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장흥군에서는 2025년 8월 현재 60가구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

군은 향후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흥군생활보장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복지급여 보장이 중지될 위기에 처한 54가구 90명에 대하여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수연 주민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 중지 또는 신청자의 보장제외 가구에 직접 방문을 통한 대면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군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영광군,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전국 2위 달성

올해 12농가 추가 인증, 총 22농가로 탄소중립 실현 앞장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 현재, 총 22농가가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획득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증 농가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만 12농가가 신규 인증을 받아, 영광군은 명실상부 저탄소 축산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입한 제도로,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농가 평균 대비 10% 이상 줄인 농가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을 받은 축산물에는 전용 인증 마크가 부착되어 시중에 유통되며,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시스템을 통해 인증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오왕희 축산식품과장은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전국 2위라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영광군이 저탄소 축산을 선도하는 모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농가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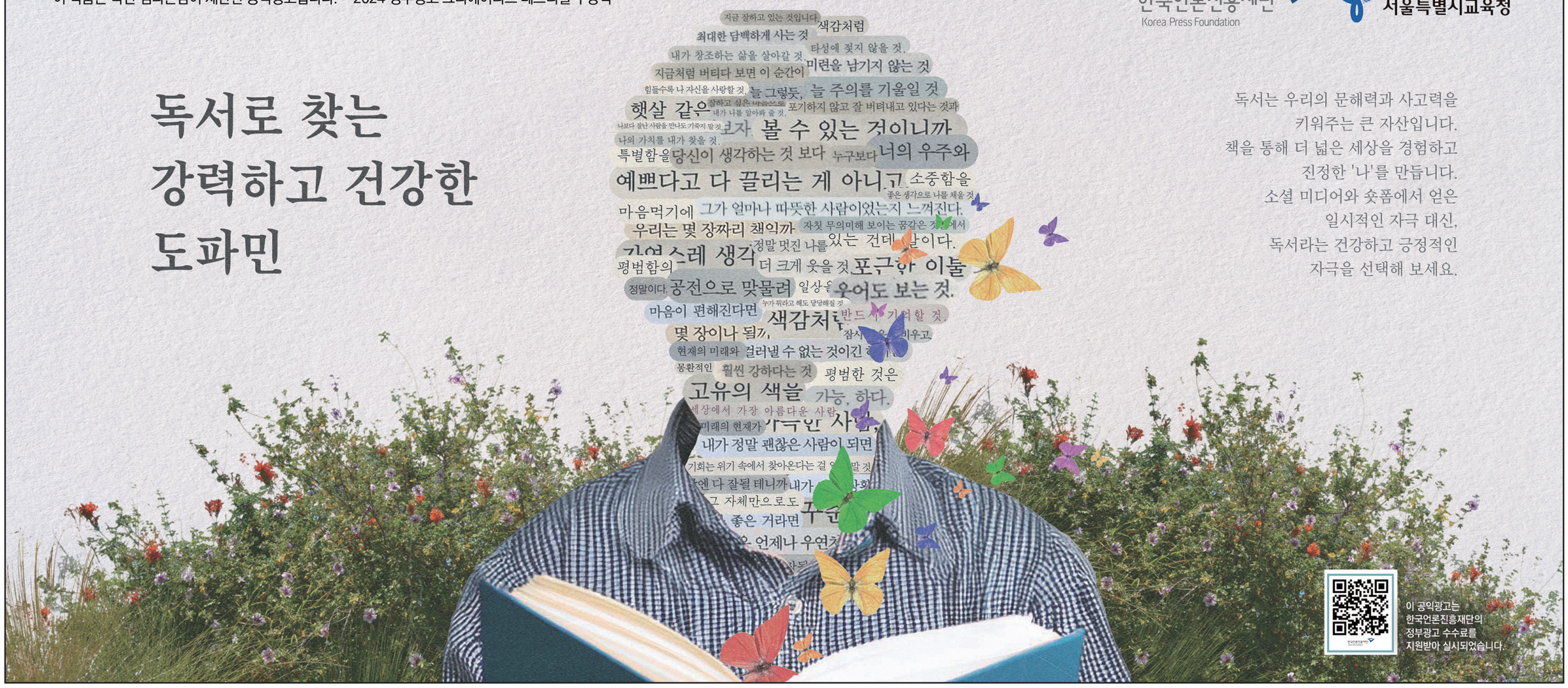
한편, 영광군의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2023년 4농가를 시작으로 2024년 10농가, 2025년 22농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영광/이현식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